

전자담배 논란 3R, 식약처 주장 반박한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위해성 감소 확인”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헛갈리는 흡연자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임상결과 발표

美 흡연자 984명 아이코스 사용 6개월 후 암 발병 물질 43.5% ↓ “식약처, 타르수치 측정방법 미흡”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이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시판 중인 궤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글로·릴)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몸에 해롭다’는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로 인해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위해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이코스 최신 임상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인체 노출 반응 임상연구 결과를 통해 아이코스 위해성 감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대규모 임상연구는 지난 8월 ‘위험감소담배제품(MRTP)’과 판매 승인을 검토 중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추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국내 관련 부처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PMI의 인체 노출 반응 연구는 미국 성인 흡연자 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496명이 아이코스로 전환하



18일 마누엘 피취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과학연구 최고책임자가 타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고, 나머지 488명은 일반담배 흡연을 유지했다. 6개월 동안 이들의 신체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아이코스로 전환한 흡연자들은 8가지 신체 평가지표(주요 임상 위험 평가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특히 5가지 주요 임상 위험 평가지표는 계속 흡연한 사람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이코스를 사용할 경우 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 ‘Total NNAL’ 물질은 일반담배를 피울 때보다 43.5% 감소했다.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FEV1 %pred’는 1.28%pred 차이가났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인 ‘HDL

-C’(3.09mg/dL), ‘WBC Count’(-0.420 GI/L), ‘sICAM-1’(2.86%), ‘11-DTX-B2’(4.74%) 등도 아이코스를 이용할 때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8-epi-PGF2a’(6.80%), ‘CO Hb’(32.2%) 수치도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설명했다.

마누엘 피취 PMI 과학연구 최고책임자는 “이번 아이코스 연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는 연기 없는 제품의 위험도 감소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대규모 임상연구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일반담배 흡연에 비해 아이코스로 전환하는 것이 담배의 위험도를 줄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에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분석 결론의 해명을 촉구했다. 식약처의 분석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견해를 무시하고 타르 중심 제품 비교 및 측정방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자체 연구결과 궤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9종의 함유량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담배보다 90% 적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타르수치가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 수치만으로 유해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WHO도 타르에 대해 “타르는 담배 규제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 수치는 잔여물의 단순 무게(mg)이므로 독성물질과 그렇지 않은 잔여물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며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을 비롯한 해외 보건기관들이 궤련형 전자담배의 증기는 일반담배 연기와 질적으로 매우 다르다며 타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가 타르

수치를 계산할 때 제품의 특성상 수분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측정 방법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담배의 연기와 달리 궤련형 전자담배의 증기는 수분량이 80%가 넘어 정확한 수분량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측정과정에서 증발량이 늘게 되고, 그 증발한 수분량이 NFDPM(타르) 수치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식약처는 이미 궤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분들이나 앞으로 이를 고려하는 흡연자들에게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일반담배 대비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흡연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궤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궤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감소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경고그림은 소비자들에게 담배제품에 따라 상대적 위험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두 개의 회오리판’ 필립스코리아 에어프라이어 출시

필립스코리아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존 에어프라이어의 회오리 바퀴판 기술을 발전시킨 ‘트윈터보스타 에어프라이어’ (모델명 HD9743)를 선보이고 있다. 트윈터보스타 에어프라이어는 기존 열 반사 회오리판을 기름 튜브 방식 회오리판을 추가로 장착, 고온의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켜 더욱 바삭하면서도 기름이 최대 1.4배가 제거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요리를 가능케 했다.

/손진영 기자 son@

대웅제약, 신약개발 드라이브... 연구조직 개편

기능중심 팀에서 익스트림으로 전환 센터장 체제로 변경해 전문성 강화

대웅제약은 신약개발 가속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조직 개편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하나의 연구과제를 분명한 목표로 삼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능중심의 팀 조직을 익스트림 팀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 연구본부장 중심의 조직을 센터장 체제로 변경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웅제약 연구조직은 신약센터, 바이오센터, 신제품센터와 CTO전략팀, 비임상개발팀의 3센터 2팀 체제로 운영되



대웅제약 본사. /대웅제약

세포 등 2개의 익스트림 팀을 신설했다. 그리고 신제품센터는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전략인 플랫폼 기반 기술을 활용한 ▲데포 플랫폼(Depot platform)을 익스트림 팀으로 신설했다.

한편 연구조직은 센터장 체제로 개편하면서 센터별 독립성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약센터는 서울대 약학박사를 거쳐 21년간 대웅제약에서 신약연구·개발을 맡아 온 박준석 센터장, 바이오센터는 포스텍 생명과학 박사 출신인 12년간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공정개발에 매진해 온 유종상 센터장, 그리고 신제품센터는 서울대 약제학 석사를 거쳐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등에서 14년간 개량신약 및 차별화 제형 연구를 담당해 온 김관영 센터장이 맡았다.

/박인용 기자

종근당, 취약계층 비만환자 무상치료 지원

비만치료용 위풍선 ‘엔드블’ 시술

종근당은 최근 대한비만연구의사회와 저소득층 고도비만환자 치료 지원사업인 ‘비만제로 행복더하기’ 협약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비만제로 행복더하기 캠페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비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내 비만 유병률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종근당은 저소득층 고도비만 환자에게 비만치료용 위풍선인 엔드블 무료 시술을 지원한다.

엔드블은 비만치료용 위풍선으로 물과 공기를 주입해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간단한 위내시경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시술 전·후에 별도의 입원이 필요 없고, 시술시



지난 11일 비만제로 행복더하기 협약식에서 종근당 BH사업부 김진규 이사(왼쪽)와 대한비만연구의사회 김민정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

간이 10분 내외로 짧아 환자의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신마취에 따른 위험이나 장유착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고 식사량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체중감량을 돕기 때문에 6개월 후 기기를 제거한 후에도 요요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다.

/박인용 기자

그린카-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기업 지원 MOU

카셰어링 브랜드 그린카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부산 대표 창업기업인 브라이트클럽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부산 대표 창업기업인 브라이트클럽 소속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생모형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그린카의 법인 맞춤형 서비스에 가입하면 전국 2800여개 그린존(차고지)의 약 6000대 그린카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성은 기자 ysw@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 강좌 개최

29일 혈뇨·방광암 관련 강연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의과대학 1층 김옥길 홀에서 ‘인공방광 이야기: 혈뇨와 방광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방광암과 인공방광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방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건강강좌는 ▲혈뇨와 방광암(송완 인공방광센터 교수) ▲인공방광수술 안전한다?(이동현 인공방광센터장·사진) ▲수술 후 관리



(박혜진 인공방광센터 전문간호사) ▲인공방광수술 후 성생활(정우식 성재활클리닉 교수) ▲인공방광·방광암환자의 식생활(정겨운 영양사)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어질 예정이다.

이번 건강강좌는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박인용 기자